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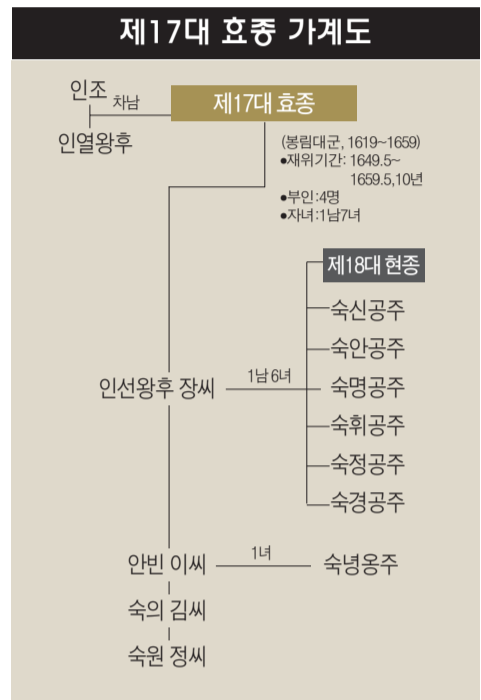
# 북벌의 영웅인가 순진한 몽상가인가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㉔

## 17대 효종과 인선왕후 -영릉

17대 효종과 인선왕후 -영릉  
 효종 1619~1659(41세)  
 재위 1649.5(31세)~1659.5(41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효종), 이들 형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1637년 청나라는 병자호란을 종결짓고 돌아가면서 소현세자, 봉림대군, 인평대군 등 인조의 세 아들을 불모로 잡아갔다. 셋째 인평대군은 이듬해 돌아왔으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8년 뒤 1645년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인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가치관은 판이하게 형성된다. 소현세자는 국력이 막강해지는 청을 현실의 눈으로 인정하고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봉림대군은 아버지 인조와 자신에 온갖 굴욕을 안겨준 청에 대해 증오를 키웠다. 귀국해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배운 서양문명과 실리 외교를 주창했다. 봉림대군은 대명 사대주의에 더욱 집착하여 반청사상을 고조시켰다. 귀국한 지 두 달 만에 소현세자는 갑자기 병으로 드러누웠고, 와병 3일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이 때 그의 은모이 세가 땅게 변해 있었고, 뱃속에서 피가 쏟아졌다. 일부 학자들은 아버지 인조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주장한다.

세자의 죽음으로 봉림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효종이다. 효종의 반청감정에서 비롯된 북벌계획은 다양한 역사적 화두를 던진다. 치열한 민족정신의 발로, 한여름밤의 꿈, 허공을 향한 몽상가의 딸꾹질, 슬픈 개그 등으로 규정해 본다.

‘어영부영’이란 말이 있다.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조지키나 사회에서 가장 못마땅한 행태다. 어영은 어영청(御營廳)에서 유래되었다. 어영청은 조선시대 삼군 중 하나로 최정에 야전군이다. 그런데 어영청의 군기와 훈련상태에서 어영부영(御營不營)이 유래되었다니 아이러니다. 연유는 이렇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청나라를 치려는 북벌을 국가 지상목표로 삼았다. 삼전도의 굴욕, 8년간 심양에서 보낸 인질생활을 생각하면 삶이 필연이다. 인질로 잡혀갈 때의 심정을 이렇게 읊었다. 그 분개는 여전히 유효하다.

청석령(靑石嶺) 디나거나 초하구(草河溝) 어드메오 호풍(胡風)도 차도 황사구름 비는 모스일고  
 뒤러서 내 행색(行色) 그려 내야 남 겨신 되 드릴고.

함께 끌려가 6년간 고초를 겪은 김상헌이 읊은 글귀도 귀에 쟁쟁하다.

가노라 삼각산이 다시 보자 환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미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울음말씀 하리라.

청나라를 치겠다는 북벌은 10년을 목표기간으로 삼았다. 불모 시절에 전투정보, 지리정보를 확보했다. 군사력만 확보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보안유지가 첫째다. 다음은 긴자점 등 친청과 숙청이다. 10년 동안 3만 명의 정예 북벌군을 양성해서 명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북벌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으로 끝났다. 명



효종 영릉 전경.

## 8년간의 청나라 인질생활 거치며 반청사상 키워 즉위하자마자 북벌 추진...41세에 갑작스런 승하

과 대치하던 청의 세력이 들불처럼 커지고, 내부 문제는 말이 아니었다. 어영청 상위직급은 양반 자제들이 차지했다. 실무보다는 형식을 따졌다. 싸움은 아랫것들이 하는 것이라며 종을 대신 내보내고 그들은 주색잡기를 즐겼다. 병졸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했다. 정예군은 고사하고 당나라 군대보다 못한 오합지졸이었다. 효종의 3만 정예군 양성 목표는 고작 5600여명의 어중이떠중이 부대로 만족해야 했다.

양반 자제에게도 군역을 부과하라는 뜻 있는 신하의 주청을 받아들여 이를 실행하려 했다. 실패를 조사할 임행어사를 파견한 지 한 달 만에 효종은 갑자기 승하했다. 북벌계획이 마침표를 찍는다. 여기에도 독살설이 대두된다. 북벌계획에 대한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효종이 사람의 영수 이조판서 송시열과 독대한 지 두 달 만에 41세 창창한 나이에 승하했다. 몸중은 없고 심증만 회자된다. 수전증이 있는 신가귀라는 여의가 효종의 얼굴에 난 종기에 침을 놓은 직후 피를 쏟으며 죽었다는 것이다. 시신이 통통 부어 있었으며 관이 맞지 않아 송시열 등 대신들이 널빤지를 덧대어 왕의 시신을 관에 넣었다.

효종용 아래 문헌 인선왕후는 우의정 장유외 딸이다. 13세 때 한 살 어린 봉림대군과 가례를 올려



앞 뒤로 나란한 쌍릉 형태의 영릉. 뒷쪽은 효종릉, 아랫쪽은 인선왕후릉(위). 강화도는 전란을 당하면 단골 피난처다. 사진은 항공촬영한 강화 용두둔대 전경(아래).

풍안부부인에 봉해졌다. 1637년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패하자 남편과 함께 불모로 잡혀가 8년 동안 심양에서 보냈다. 소현세자가 죽고 봉림대군이 세자에 책봉되자 세자빈이 되었으나, 책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저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다. 효종이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다. 1659년 효종이 죽은 후 효숙대비의 존호를 받았다. 57세로 승하했다.

효종은 죽은 후에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처음 묻힌 곳은 오늘날 동구릉 능역 안 월릉(영조왕릉)터이다. 송시열 등 서인들의 주장에 의해서다. 15년 후 남인들이 반격에 나선다. 터가 불길하고 석물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 열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여 1673년(현종14) 여주의 영릉 결으로 옮겼다. 왕릉이 천장되면 처음 능지를 택한 관료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서인들이 줄줄이 면직되었다. 죽은 자를 위해 더 좋은 명당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반대파를 육보이기 위한 천장이었다. 왕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괴롭다. 그래도 권력을 향해 운모를 던지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권력은 마력과 매력, 괴력을 동시에 지녔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권력도 그와 같다. 탐해서 얻어도 후회스럽고 얻지 못해 변방을 떠도는 외로운 섬이 되어도 분하다. 깨달음을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 진력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부처는 가르쳤지만, 세속 도시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 괴롭고 괴롭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 영릉(寧陵)은

17대 효종과 인선왕후(1618~1674) 장씨의 쌍릉이다. 4대 세종의 영릉(英陵)과 700m 떨어진 곳에 있다. 원래 효종의 능은 1659년 10월 29일 건원릉 서쪽 산줄기(원릉 자리 근처)에 병풍석을 갖춘 왕릉으로 조성되었다. 그 다음해에 인선왕후가 죽자 정월에 묻는다는 풍수이유로 왕릉 앞에 인선왕후의 능을 써서 앞뒤로 나란한 쌍릉을 이루었다. 동원상하봉이라는 특이한 모습이다. 위에 있는 효종의 능에는 곡장을 돌렸으나 인선왕후의 능에는 두르지 않았다. 이는 부부가 같은 방을 쓴다는 의미다. 합장릉의 경우에도 남편 석실과 아내 석실 사이에 구멍을 내어 서로 통하게 해준다. 혼령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부부회포를 풀라는 의미다. 세종의 영릉과 함께 영릉릉으로 불린다. 사적 195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산 83-1 면적 215만2022㎡(65만 4322평).

### "승기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필름